

孟子諺解 異本攷

韓 榮 均

- | | |
|-----------------|-------------------|
| I. 머릿말 | 5. 正祖朝의 刊本에 대하여 |
| II. 異本에 대한 검토 | 6. 純祖朝 刊本에 대하여 |
| 1. 宣祖朝 刊本에 대하여 | III. 異本の 分類 |
| 2. 肅宗朝 刊本에 대하여 | 1. 表記法上 特徵에 의한 分類 |
| 3. 光海朝 刊本에 대하여 | 2. 版式의 特徵에 의한 分類 |
| 4. 仁祖朝의 刊本에 대하여 | IV. 마무리 |

I. 머릿말

1.0. 16世紀末 처음 刊行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經書諺解類는 아마도 國語史 資料로서는 가장 많은 異本을 가지고 있는 것 中の 하나일 것이다. 壬亂 以前の 刊本이야 그리 흔한 것이 아니지만 18-9世紀의 것들로 짐작되는 刊本은 비교적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經書諺解類는 그 刊行에 관한 記錄을 갖고 있지 않아서 一次的 資料로 利用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더구나 이들 經書의 諺解書들은 官本뿐만아니라 私家本이나 坊刻本도 적지 않아서, 刊行地域이나 時期를 알아내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異本들은 獨自的으로 諺解되고 印行되었다기보다는 中央에서 刊行된 官本을 底本으로 하였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그 底本을 確認하는 것이 異本の 性格을 밝히는 一次的 作業이 될 것이다. 그런데 經書諺解類는 中央에서만도 近 10여 차례나 重刊되었으며, 그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들 官板 重刊本 사이의 差異點과 共通點을 분명히 해둘 必要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四書諺解 中 孟子諺解를 대상으로 官版 重刊本の 系統을 確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孟子諺解는 筆者가 調査한 바에 따르면 中央에서만 最小限 9차례 印刊되었다. 그 중, 栗谷先生孟子諺解를 제외한 8種의 異本을 대상으로 그 書誌上 特徵과 刊行 經緯를 확인하고, 實錄·眉巖日記·內賜記·刊記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刊行年代를 推定하고, 또 異本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확인하여 系列을 세우는 것이 本攷의 목적이다.

우선 II장에서 각 異本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를 거친 뒤, III장에서 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官刊 經書諺解類의 異本 系列을 세워보기로 한다.

II. 異本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의 經書諺解書에 대한 研究는 小學諺解의 경우를 제외하면 宣祖朝의 初刊本과 栗谷先生諺解本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었고, 그 以後의 刊本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¹⁾ 따라서 정확히 몇 번이나 經書의 諺解書가 重刊되었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의 論議는 필자가 조사한 것에 따르기로 한다.

筆者가 확인한 바로는 中央에서만 四書는 모두 8차례, 孟子諺解만은 9차례의 諺解書 刊行이 이루어졌다. 이 중 栗谷先生諺解를 제외한 刊本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이 이 章의 目的이다. 주로 孟子諺解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論語·中庸·大學의 諺解本도 언급하기로 한다. 書誌의 特徵의 검토는 주로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本에 의한다.

1. 宣祖朝 刊本에 대하여

宣祖의 命으로 校正廳에서 刊行한 것으로 活字本이다. 보통 庚辰字라고 하며, 再鑄乙亥字라고도 하는 活字로 만들어진 것인데, 原刊本으로 推定되는 萬曆十八年 內賜本 四書諺解 全帙이 陶山書院에 所藏되어 있음은 이미 알려진 바와같다. 陶山書院 所藏本에 대해서는 既存의 研究에 미루고,²⁾ 서

1) 최원배 선생의 「한글갈」과 小倉進平의 「增訂 補註 朝鮮語學史」 등에서 약간씩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刊行 事實의 確認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2) 原刊本 四書諺解에 대해서는 安秉禧 1972 pp. 86-89, 安秉禧 1978 p. 146 및 李崇寧 1972 등 참조.

울대 학교 奎章閣 所藏本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奎章閣 所藏本은 「일사古貴 181.1 M268eo」의 所藏番號를 가진 孟子諺解 1冊이다. 現存하는 부분은 卷11, 12로, 卷11의 첫 2張과 卷12의 마지막 두 張(37, 38)이 落張이다. 冊大는 33×21cm에 四周雙邊, 半葉 10行이며, 每行 19字이다. 匡廓의 크기는 外廓 24.7×17.1cm, 內廓 23.9×16.7cm이다. 傍點이 每字(한글의 경우) 표시되어 있으며, ㅇ과 스투도 사용하고 있다.

2. 光海朝 刊本에 대하여

刊行에 관한 별도의 記錄은 없으나 現存本들의 內賜記를 통하여 刊年 推定이 가능하다. 즉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大學諺解는 萬曆三十九年の 內賜本이, 中庸諺解·論語諺解·孟子諺解는 萬曆四十年의 內賜本이 完帙로 전한다. 이 年代는 각각 光海君 3年(1611)과 4년(1612)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들은 자기 內賜年에 刊行된 것으로 推定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大學諺解는 「奎 4027」의 所藏番號를 가지고 있는데, 宣祖朝 刊本과 달리 木活字本이다. 이 木活字는 光海君 5年 詩經諺解를 刊行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³⁾ 즉 이 大學諺解 光海朝本은 壬亂以後 새로 刊行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內賜年度에 따라 1611年을 그 刊年으로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孟子諺解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奎1886, 奎1920, 奎2880, 奎3465」의 4帙이 전하는데, 이 중 「奎2880」만이 完帙이다.⁴⁾ 이 刊本에는 “萬曆四十年十二月日……五臺山上”이라는 內賜記가 있다. 冊大는 35.8×22.4cm, 四周雙邊, 每半葉 10行 19字에 註雙行이며, 外廓 24.4×17.9cm, 內廓 23.7×17.6cm, 版心은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이다(때때로 版心に 刻字가 자기 고유의 표시를 한 부분도 있다).

일사문고의 宣祖朝本 卷11—12와 「奎2880」의 卷11—12를 比較해 보면, 表記法에 있어서는 傍點의 有·無 이외에는 완전히 동일하다. 글자의 字體 또

3) 「奎章閣圖書 韓國本 綜合目錄」에는 校書館 木活字로 되어있으나, 이는 訓鍊都監字로 함이 옳다. 安平大君字體를 본떠 壬亂以後 만든 活字인 것이다.

4) 「奎3465」는 卷7—8, 卷11~12의 2冊만이 전하며, 「奎1886」의 光海四年本은 Vol.2가 다음에 설명할 仁祖九年의 後刷本이다. 「奎1920」 역시 Vol.1(卷1—2), Vol.7(卷13—14) 2冊을 제외한 5冊이 後代의 刊本이다. Vol.1, 7은 冊大가 35.5×22.4cm 인데 반하여 Vol.2—6은 35.8×23cm로 약간 크고, 表記法에서도 Vol.1, 7은 漢字註音의 경우 스투와 ㅇ을 比較的 정확히 사용하고 있으나 Vol.2—6의 5冊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한 同一한 것으로 보아, 이 刊本은 宣祖朝 原刊本을 覆刻하면서 傍點만을 除外한 것으로 생각된다. 崇禎 4年(仁祖 9年, 1631)의 內賜本이 이 刊本の 後刷本이라는 사실도 이러한 推定의 한 傍證이 된다.

3. 仁祖朝의 刊本에 대하여

崇禎 4年の 內賜記를 갖고 있는 刊本이다. 四書의 諺解가 모두 完帙로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으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圖書館 所藏 藏書閣 圖書 中에도 “崇禎四年閏十一月日/內賜孟子諺解一件積裳山城上”의 內賜記가 있는 孟子諺解 한 帙이 있다(所藏番號 1-167). 이 역시 奎章閣 所藏本과 同一本이다.

奎章閣 소장의 孟子諺解는 모두 5帙인데(所藏番號 504, 3057, 3464, 3466-2, 3912), 3466-2만 卷5-8, 11-12의 3冊만 保存되어 있는 落帙이고, 나머지는 모두 崇禎 4年の 內賜記가 있는 完帙이다. 이들 仁祖朝 刊本들은 모두 光海 4年本の 後刷本인데, 그 板木이 많이 남았던지 많은 面을 補板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光海 4年の 板木을 그냥 사용한 부분과 仁祖朝에 補板한 부분은 漢字 註音 부분의 表記法에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즉 光海 4年本에서 △, ◊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으로 대신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과 ◊, ◊은 서로 混用되고 있다.

또 같은 內賜本도 補板 部分이 같지 않다. 奎524, 奎3057, 奎3192의 卷一을 例로 보면 다음과 같은 差異를 보인다.

524	2, 3, 4, 6, 9, 10, ⊗, 12, 13, 15, 24, 26, 27, 28, 29, 30, 31, 33
3057	2, 3, 4, 6, 9, 10, 11, 12, 13, 15, ⊗, 26, 27, 28, 29, 30, 31, 33
3192	2, ⊗, 4, 6, 9, 10, ⊗, 12, 13, 15, ⊗, 26, 27, ⊗, 29, 30, 31, 33

※ ⊗ 부분은 補板이 아닌 後刷임.

따라서 利用에 주의하여야 한다.

4. 肅宗朝 刊本에 대하여

肅宗朝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孟子諺解가 刊行되었다. 그 중 元宗字本의 경우에는 孟子諺解만 刊行되었고, 나머지 두 차례는 四書의 諺解書가 함께 印行되었음을 記錄과 現存 資料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각기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康熙二十三年本에 대하여

肅宗實錄 卷之十五上 32a, 肅宗 10年 5月條를 보면, “○丁丑。成均館啓, 刊四書三經大全諺解及心經近思錄”이라는 記錄이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肅宗 10년(1684)에 四書의 諺解書가 刊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存하는 資料로는 中庸諺解 밖에 없음이 유감이다. 이 肅宗 10年 刊行의 中庸諺解는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소장되어 있다(所藏番號 가람古 181.1 J959s). 이 본에는 “康熙二十三年十月十六日…”의 內賜記가 있다. 康熙二十三年은 바로 肅宗 10년에 해당하므로, 이 內賜本의 存在는 實錄의 記錄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참고삼아 中庸諺解의 書誌事項을 보면 다음과 같다.

木版, 冊大 31.6×21cm, 四周雙邊, 每半葉 10行, 每行 19字, 註雙行. 上下內向花紋魚尾.

(2) 元宗字 孟子諺解에 대하여

이 刊本에는 肅宗이 친히 쓴 跋文이 있다. 跋文의 內容에 의하면 仁祖의 아버지인 元宗이 쓴 字體를 바탕으로 木活字를 새겨 찍은 木活字本이다.

跋文의 末尾에 “歲在癸酉孟夏之日既望”이라는 記錄이 있는 바, 이때의 癸酉는 肅宗 19년에 해당하며, 中國의 淸 聖祖 즉 康熙 32年이다. 그런데 서울大學校 奎章閣 所藏本 중 “〇〇三十二年…”이라하여 內賜記의 일부 글자가 훼손된 본이 있다. 일사古 181.1 Y57m의 所藏番號를 갖는 한 帙이다. Vol.1의 표지 일부분과 첫 장의 일부가 훼손되어 內賜記 全體를 볼 수 없음이 유감이나, 남아 있는 부분 중 “三十二年”은 바로 跋文의 癸酉와 일치하는 年代의 干支인 것이다. 따라서 이 元宗字本 孟子諺解는 肅宗 19年(1693)이 그 刊行年度인 것이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圖書館의 藏書閣에도 完帙이 보관되어 있다(所藏番號 1—168). 奎章閣 所藏本과 동일한 刊本이다.

奎章閣 所藏本은 冊大가 32.6×21.1cm, 四周雙邊, 外廓 25.9×18.2cm, 內廓 25.1×17.7cm, 有界 每半葉 10行, 每行 19字, 註雙行이며, 版心은 上下內向三葬花紋魚尾이다.

이 元宗字本은 表記法上 이전의 刊本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째 漢字 注音에서 影母字에는 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終聲의 ㅅ은 모두 ㅁ으로 바꾸고 있다. 즉 스은 사용하되 ㅅ은 폐기한 것이다 (이전의 간본에서는 漢字 注音에서는 스과 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둘째, 仁祖朝 刊本까지에서는 連綴만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서부터는 分綴表記가 나타난다(뿌니→쑤이 卷一 7b).

세째, 近代國語 表記法上 特徵의 하나인 末音添記(重綴)이 나타난다(별을→별를 卷一 7b).

(3) 戊申字本에 대하여

戊申字는 顯宗 九年에 평양에서 늦최로 鑄造한 活字로 英祖末까지 약 90년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

이 戊申字本의 孟子諺解는 古181.1184 M268m의 所藏番號로 卷11·12의 1冊만이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보관되어 있어서 정확한 刊行年代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동일한 樣式, 동일한 活字의 大學諺解(奎1089, 奎1405, 奎3532 등), 中庸諺解(奎434, 443—450 등), 論語諺解(奎510, 516, 518 등)의 完帙이 서울大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어, 이들이 같은 시기에 戊申字로 印刊되었을 것임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런데 「誠庵文庫典籍目錄」에 의하면 같은 戊申字本 中庸諺解 1冊에 康熙 34年の 內賜記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로 미루어 서울大學校 奎章閣의 孟子諺解도 康熙 34年 즉 1695年の 印行本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 戊申字本들은 그 版式과 表記法에 있어 以前の 刊本들과 상당히 다른 점을 보이고 있어, 經書諺解 異本の 系統을 確立하는 데에 중요한 位置를 갖는다.

版式에서의 제일 큰 變化는 字數의 變化이다. 以前の 刊本들 즉 宣祖朝 原刊本부터 元宗字本까지는 모두 10行 19字인 데에 비하여, 戊申字本 以後

5) 金斗鍾 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p. 303—308.

의 刊本들은 中央에서 印刊된 것인 경우 모두 10行 19字의 배열로 되어 있다. 이런 點에서 戊申字本은 版式 變化의 起點이 되는 것이다.

版式的 變化 中 다른 하나는 版心の 變化이다. 戊申字本 以前의 刊本들은 모두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戊申字本부터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를 가진다.

表記法에 있어서의 중요한 차이점은 漢字 注音에서 나타난다. 그 以前에는 影母字에 스을 사용하던 것을, 戊申字本부터는 스의 표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있는 것이다.

以上の 版式과 表記法의 差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戊申字本은 그 以前의 刊本과 以後의 刊本을 나누는 자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正祖朝의 刊本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丁酉字(壬辰字 혹은 四鑄甲寅字라고도 함)로 刊行된 刊本이다. 丁酉字本을 正祖朝의 刊本으로 보는 理由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丁酉字의 鑄造 時期

記錄에 의하면 丁酉字라는 이름의 活字는 英祖 38年(壬辰)과 正祖 元年(丁酉) 두 차례에 걸쳐 鑄造된 活字를 함께 指稱하는 것이다.⁶⁾ 따라서 丁酉字本의 刊行 時期는 아무리 빨라도 英祖 48年 즉 1773年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다.

둘째, 同一 活本の 四書三經의 刊行 時期

國立中央圖書館 一山文庫에는 四書의 丁酉字本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刊年는 正祖 21年으로 알려져 있다.⁷⁾ 따라서 약간은 無理한 推定이나, 經書의 刊行과 그 諺解書의 刊行이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서울大學校 奎章閣에 이 丁酉字本 孟子諺解 2帙이 傳한다(奎2864, 5447-1). 이 중 奎 5447-1은 Vol~5의 5冊만 남아있는 零本이고, 奎2864의 한 帙이 完本이다. 丁酉字本 孟子諺解의 書誌的 特徵을 奎章閣 所藏本을 통해 살펴

6) 金斗鎭 op. cit, pp. 321-326.

7) 金斗鎭 op. cit. pp. 325.

보면 다음과 같다.

冊大 33.7×22cm, 四周單邊, 半廓 23.9×16.8cm, 有界, 10行 17字, 注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戊申字本과 比較할 때 匡廓의 界線만 雙邊과 單邊으로 다를 뿐, 나머지는 같은 양식을 보인다. 表記法 上으로도 스과 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등, 戊申字本과 一致한다.

6. 純祖朝 刊本에 대하여

庚辰新刊內閣藏板이라는 刊記를 가지고 있는 刊本으로 丁酉字本の 覆刻本이다. 이 刊記의 庚辰이 몇 년을 가리키는가는 正確히 알 수 없지만, 이 刊本이 丁酉字의 覆刻本이라는 점에서 대개 1820年을 그 刊年으로 推定한다.⁸⁾

이 刊本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奎章閣에도 四書의 諺解가 모두 所藏되어 있다. 奎408의 所藏記號를 가지는 孟子諺解 한 帙을 대상으로 그 版式과 表記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版式은 四周單邊, 半廓 23.6×16.8cm, 10行 17字, 注雙行, 上下向二葉花紋語尾로 丁酉字本과 一致한다.

表記法도 대부분 丁酉字本과 一致한다. 다만 당시의 表記者들의 認識의 變化를 보여주는 表記法의 變化가 나타난다. 이른바 重綴表記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다(ㄴㅌ머→ㄱㅌ머).

校正聽本 四書諺解를 비롯한 經書諺解書는 原則적으로 連綴表記 및 分綴表記를 사용하며, 重綴表記는 사용하지 않는다.⁹⁾ 그런데 이 純祖朝의 庚辰新刊內閣藏板本에 이르러 重綴表記가 나타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시기의 重綴表記法은 ‘ㄱㅌ머’가 아니라 ‘ㄴㅌ머’가 더 일반적인 것이다.¹⁰⁾ 그런데 여기서 ‘ㄱㅌ머’가 사용된 것은 결국 經書諺解書의 表記法이 보다 더 보수적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李崇寧(1972) pp. 311—312.

9) 校正聽本 四書諺解의 表記法에 대해서는 李翊燮(1985) 참조.

10) 重綴表記法의 變화에 대해서는 洪允杓(1985) 참조.

Ⅲ. 異本の 分類

Ⅱ章에서 살펴본대로, 經書諺解類는 여러 차례 重刊을 거치면서도 그 表記法이나 翻譯이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바로 儒敎의 經典이라는 原典의 性格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諺解書가 最小限 8種이나 되므로, 地方刊本이나 坊刻本の 底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微少한 차이라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며, 그러한 차이에 의한 分類를 試圖해 보는 것도 전혀 無意味

〈孟子諺解의 異本 比較〉

판본	서울대 소장본	간년	版種	판격	본문	판심	표기법특징	비고
宣祖本	일사古貴 181.1 M268eo	1590	活字本 (庚辰字)	사주쌍변 外: 24.7×17.1 內: 23.9×16.7	10行 19字 注雙行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 방점표기 • ㅎ, △사 용	• 권11·12 만 보존 • 낙장본임
光海本	규2880	1612	木板本	사주쌍변 外: 24.4×17.9 內: 23.7×17.6	10行 19字 注雙行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不同)	• 방점전면 페기 • ㅎ, △사 용	• 萬曆40年 내사기있 음.
仁祖本	규3912	1631	木板 後刷本	사주쌍변 外: 23×18 內: 22.1×17.5	10行 19字 注雙行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不同)	• 補板부분 페기 용 • △혼용	• 崇禎4年 내사기
康熙 23年本	가람古 181.1 J959s	1684	木板	사주쌍변 外: 21×16.1 內: 20.4×15.7	10行 19字	上下內向 花紋魚尾 (不同)	• ㅎ, △혼 용	• 현전하는 孟子諺解 가없어中 庸諺解로 대신살필
元宗字 本	일사古 181.1 Y57m	1693	木活字 (元宗字)	사주쌍변 外: 25.8×18.2 內: 25.1×17.8	10行 19字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 ㅎ완전페 기 • 漢字音 影母字에 △사용	• 御製跋
戊申字 本	古 181.1184 M268m.	1695?	活字本 (戊申字)	사주쌍변 外: 25.2×17.4 內: 24.6×16	10行 17字	上下內向 二葉花紋 魚尾	• △완전페 기	• 권11·12 만 보존
丁酉字 本	규2864	정조 년간 ?	活字本 (丁酉字)	사주단변 25.6×17.1	10行 17字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純祖本	규408	1820	木板本	사주단변 23.6×16.8	10行 17字	上下內向 三葉花紋 魚尾		• 庚辰新刊 內閣藏本 刊記

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 章에서의 異本分類는 그러한 立場에서 試圖되는 것이다.

우선 論議의 便宜를 위해 Ⅱ章에서 檢討한 각 刊本の 概要를 포로 정리한 후, 表記法과 版式的 차이에 의해 分類해 보기로 한다. 板本의 名稱은 筆者가 任意로 붙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異本이 刊行된 時期의 王名에 의하며, 肅宗朝의 경우 3가지 異本이 있으므로 각 刊本의 特徵에 의하여 名稱을 부여한다. 같은 刊本이 여럿 있는 경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表記法上 特徵에 의한 分類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經書諺解類의 表記法上的 큰 特徵은 그것이 철저히 原刊本의 表記를 따른다는 점이다. 宣祖朝 原刊本 以後의 刊本에서의 表記法上 두드러진, 그리고 確實한 變化라면 傍點과 ㅅ, ㅅ의 폐기 뿐이다.(이는 音韻變化에 의해 刊行 당시의 話者들이 전혀 認識할 수 없었던 音素 내지 韻素 表記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점 ‘·’의 使用을 끝까지 固守하는 점과는 對比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이외에는 거의 모두가 宣祖朝 原刊本과 一致한다.¹¹⁾ 이런 점에서 孟子 諺解는 그 表記法上 4가지로 分類가 가능하다.

(1) 傍點表記 및 ㅅ·ㅅ을 사용하는 原刊本

(2) 傍點은 표시하지 않되, 漢字 注音에서 ㅅ과 ㅅ을 사용하는 光海本, 仁祖朝本, 康熙二十三年本

(3) 漢字 注音에서 ㅅ은 사용하지 않고 ㅅ만을 유지하고 있는 元宗字本

(4) ㅅ, 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戊申字本과 그 이후 刊本

2. 版式的 特徵에 의한 分類

版式的 變化 중 주목되는 것은 字數와 魚尾의 變化이다. 原刊本의 形態는 10行 19字로, 그 이후의 重刊本는 모두 그것을 따르다가, 戊申字本에 이르

11) 몇 가지 예외로 홀서→홀씨 등의 硬音 表記의 變化, 마든니→곤든니와 같은 重綴表記의 出現, 處格標識 에/에의 混亂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는 다른 諺解書의 初刊本과 重刊本의 차이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 것이다.

러 10行 17字로 그 배열이 바뀐다. 뿐만 아니라 版心 魚尾의 形態도 上下內向三葉花紋魚尾를 원칙으로 하던 것이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로 바뀐다.

이러한 變化는 戊申字本이 전면적으로 새로이 만들어진 刊本임을 말해 준다. 이는 表記法에 있어서의 漢字 注音에서의 스의 使用을 폐기한 것과도 脈을 잇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孟子諺解를 戊申字本 以前과 以後로 나누고자 한다. 여기서 앞절에서의 表記法의 變化에 의한 分類를 감안하면 대개 三分이 可能하다고 본다. 즉 傍點 表記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宣祖朝의 原刊本을 나누어 놓고, 光海本~元宗字本, 戊申字本 以後의 刊本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Ⅳ, 마무리

Ⅱ·Ⅲ章을 통하여 簡略하게나마 經書諺解 특히 孟子諺解의 異本들의 特徵을 살펴보고, 그 系列을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分類가 결코 완전한 것은 아니다. 李崇寧(197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地方에서 刊行된 것들은 적은 양이기는 하나 간행 지역어의 특징을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檢討가 이루어진 후에야 完全한 分類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 언어진 結論이 地方刊本の 底本을 確認하고 그 刊行 年代를 推定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金斗鍾(1974),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探求堂.
 서울大學校 圖書館(1981), 「奎章閣圖書 韓國本 綜合目錄」上·下.
 誠庵古書博物館(1975), 「誠庵文庫典籍目錄」.
 安秉禧(1972), “壬辰亂 直前 國語史 資料에 관한 二三問題에 대하여”, 「震壇學報」32.
 安秉禧(1978), “中世語의 한글資料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 「奎章閣」3, 서울大 圖書館.
 安秉禧(1982), “國語史 資料의 書名과 卷冊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7,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李崇寧(1972), “大學諺解의 栗谷本과 官本과의 比較研究”, 「東喬閔泰植博士 古稀紀念 儒教學論叢」.

李翊燮(1985), “近代韓國語文獻의 表記法 研究 — 特別 分綴表記의 發達을 中心으로”, 「朝鮮學報」104.

최현배(1976), 「고친 한글자」, 서울:정음사.

洪允杓(1985), “近代國語의 表記法 研究”, 「民族文化研究」19. 高麗大 民族文化研究所.

小倉進平(1964), 「增訂 補注 朝鮮語學史」東京:邊江書院.